

탈북 초등학생의  
국어 교육 방안 연구

정남훈  
(경주유림초등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http://www.kci.go.kr)

# 탈북 초등학생의 국어 교육 방안 연구

정남훈  
(경주유림초등학교)

## 《목 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탈북 초등학생의 언어학습 특성과 국어 수업 참여 양상
4. 탈북 초등학생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 연구
5. 결론 및 제언

### <Abstract>

**Jeong Nam Hun.** 2020. 1. 6. **A Study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5, 139-16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at school sites and analyze the factors behind their participation in Korean language classes and difficulties in class to discuss solutions. Accordingly, we analyzed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of the two North Korean defectors and specifically observed their participation in Korean language classes to study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lan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 an incumbent teacher, I first met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ur years ago. I became interested in North Korean defectors when I met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preparing for this paper, I became interested in how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learn Korean well and adapt to the future as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Elementary schools are the backbone of public education. Based on his experiences in teaching North Korean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which are the backbone of public education, he decided to study the factors of difficulty in Korean language classes for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help improve his learning and vocabulary.

Teaching Korean to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easy. Furthermore, it is not easy to teach Korean when one's father is a Chinese, and he entered Korea halfway through school in China. I think all subjects can be understood smoothly, progress quickly, class can be concentrated, and class can follow.

Based on their experiences in homeroom and Korean mentoring, the researcher tried to study why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good at following Korean language classes. Though we have looked at ways to educate North Korean students for North Korean language, we need more discussions, more administrative support for education, and continued follow-up research along with various case studies. **(Kyung-ju Yurim Elementary School)**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on in Korean language classes, difficulty factors in Korean language classes, multicultural children's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 1. 서론

현재 우리사회는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해외노동자 가정, 외국 유학생 가정 등 많은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의 중추인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교육적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범 교과 학습의 주제 중 하나로 다문화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5년 8월에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외국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학생은 8만 2,536명으로 작년보다 1만 4730명(21.7%)이 증가했다(박영준 2016). 전체 학생 중(608만 8,827명) 다문화 학생 비율은 1.4%로 작년보다 0.3% 높아졌다(박영준 2016). 특히 초등학생은 2.2%로 2%대를 처음 넘어섰고 중학생(13,827명)은 0.9%, 고등학생(8,146명)은 0.5%에 달했다.

통일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 9천명을 넘어섰으며<sup>1)</sup>, 가족단위의 입국 증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학생 수도 증가하여 2007년 687명에 불과하던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학생 수는 2015년 2,475명에 이르게 되었다<sup>2)</sup>(김혜정 2016).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 현

1) 탈북주민 입국 현황(통일부 홈페이지의 통계자료(2016)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년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월	합계
합계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342	29,317

2) 연도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교육부 홈페이지의 통계자료(2016)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명)
2007	341	232	114	687
2008	495	288	183	966
⋮	⋮	⋮	⋮	⋮
2014	1,128	684	371	2,183
2015	1,224	824	427	2,475

장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을 비교해 볼 때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학업 성적과 학습 부진 등 더 많은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 또한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탈북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사안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문제 해결이다. 본 연구는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중에서 특히 북한 이탈 주민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국어 교육 학습 및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김영란(2013)은 2011년에 실시한 초6, 중3, 고2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로 탈북 학생의 국어 기초 학력 수준을 분석하였다. 전체 학생과 탈북 학생의 성취 수준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탈북 학생은 전체 학생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보통 학력 이상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보다 낮고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7~8배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이 올라 갈수록 전체 학생과 탈북학생간의 차이가 벌어졌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학생들은 이질적인 남한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 부딪히게 되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김혜정 2016). 또한 남한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탈북 과정 중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기초 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김혜정 2016). 절반 이상의 탈북 학생들은 어린 시절 북한을 떠나 오랫동안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으로 입국하였다<sup>3)</sup>. 그로 말미암아 한

**3) 출생지별 재학 현황(2015년 4월 기준, 교육부 홈페이지의 통계자료(2016)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구분	학생수			계(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북한출생	541	344	341	1,226
중국 등 제3국출생	683	480	86	1,249
계(명)	1,224	824	427	2,475

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거나 중국어 등 외국어만 구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김혜정 2012).

‘국어 교과외 언어 소통 능력은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의 학습에 영향을 주어 결국 학습 결손을 심화시킨다(박영민 2009)’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탈북학생의 부족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은 학업 부진과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탈북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2.2%로, 조사가 시작된 2008년의 수치 10.8% 보다는 낮아졌으나<sup>4)</sup>, 여전히 남한 학생의 학업 중단율<sup>5)</sup>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김혜정 2016).

이에 본 연구는 경북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탈북학생의 국어 수업 참여 양상을 일반 학급 차원에서 연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탈북학생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분석하여 학업 지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해 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전은주(2009), 박영민·최숙기(2006), 최숙기(2007), 원진숙(2009) 외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심옥례 2012).

언어의 문제, 국어의 문제가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주는 문해력에 관한 연구로 박영민(2009)이 있다(심옥례 2012). 박영민(2009)에서는 중등학교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심옥례 2012).

현직교사로 있으면서 4년 전 탈북 초등학생들을 처음 만났다. 탈북 초등학생들을 만나면서 탈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탈북 초등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습

---

4)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한 탈북학생 중도탈락률 추이는 '08년 10.8% → '09년 6.1% → '10년 4.9% → '11년 4.7% → '12년 3.3% → '13년 3.5% → '14년 2.5% → '15년 2.2% 이다(교육부 홈페이지의 통계자료 2016).

5) 교육통계연구센터(kess.kedi.re.kr)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교육단계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5%, 중학교 0.7%, 고등학교 1.4%임.

특하고 그리고 미래사회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는 공교육이 행해지는 첫 단추이자 절대적 중추이다. 공교육의 중추인 초등학교에서 탈북 학생 담임과 멘토링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초등학생들의 국어 학습 능력 신장과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 2.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 남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한다. 김천 혁신 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모두 15명<sup>6)</sup>(전교생 1050여명)이었다. 연구자는 2016, 2017학년도 담임으로 재직한 학급 내 세 명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고, 업무담당자로서 12명의 학생을 추가대상으로 관찰하였다. 학급 내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어 수업에서 학급 내 탈북 아동은 하루 종일 살펴 볼 수 있으며 특히 담임교사와의 상호 작용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17년 당시 탈북학생 명단은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멘토링을 하였던 탈북학생 명단(2016~2017)>

번호	이름	국적	학반	한국어수준
1	최○나	한국	1-9	한국어수준 중
2	이○련	중국	1-7	한국어수준 하
3	마○준	중국	2-1	한국어수준 하
4	이○원	중국	2-5	한국어수준 하
5	지○미○리	러시아	2-5	한국어수준 하

6) 이하 연구 대상 학생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6	조○향	한국	2-6	한국어수준 중
7	최○연	중국	3-6	한국어수준 상
8	최○한	태국	3-4	한국어수준 중
9	박○이	북한	3-3	한국어수준 중
10	강호철	중국	4-2	한국어수준 하
11	이○훈	한국	4-5	한국어수준 상
12	박○성	중국	4-6	한국어수준 하
13	김동현	중국	4-6	한국어수준 하
14	최○명	중국	6-4	한국어수준 하
15	김○아	중국	6-4	한국어수준 중

한국어 멘토링은 한 명당 예산이 130만원이 내려와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반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연구자 역시 한국어 멘토링 수업과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반적인 책임을 맡았다. 연구자가 지도하였던 세 탈북학생의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어 수업에서는 모르는 어휘가 많았고 짧은 문장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회과에서는 국어의 어휘나 문화의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외 모든 교과에서 세 학생이 겪는 학습의 가장 큰 문제는 국어(한국어)의 이해였다. 특히 입말과 글말 중에서도 글말의 문해력이 부족하여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의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연구자가 운영한 탈북학생 맞춤형 운영계획은 <표 2>와 같다. <표 2>는 2017년 하반기 탈북학생 운영계획이다.

**<표 2 탈북학생 맞춤형 운영계획>**

교과	한국어	지도 교사	정남훈
대상	4-6 박동성, 김동현	지도 시수	46시간
지도기간 (시수)	2017.6.12.(월)~2017.12.22.(금)(46시간)		

지도목표		*한국어 교과 지도를 철저히 하여 학습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학습과제 성취 최저 수준을 갖추게 하여 학업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인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교내 및 교외 생활의 올바른 적응과 진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주별 지도 계획					
주	지도일	주 제	학습내용	지도 자료	시수
1	6/16 (2:40~4:10)	자기 소개	한국사람, 일본, 몽골, 중국, 베트남, 태국	세종한 국어1	2
		자기 소개	학생, 선생님, 회사원, 경찰, 공무원	세종한 국어1	
2	6/23 (2:40~4:10)	일상 생활	일하다, 공부하다, 운동하다, 자다, 전화하다, 이야기하다	세종한 국어1	2
		일상 생활	학교, 회사, 집, 공원, 식당, 시장	세종한 국어1	
3	6/30 (2:40~4:10)	위치	책상, 의자, 펜, 가방	세종한 국어1	2
		위치	앞, 뒤, 위, 아래/밑, 옆, 안, 밖	세종한 국어1	
4	7/7 (2:40~4:10)	물건사기1	사과, 오렌지, 빵, 우유, 주스, 물	세종한 국어1	2
		물건사기1	0, 1, 2, 3, 4, 5, 6, 7, 8, 9, 10	세종한 국어1	
5	7/14 (2:40~4:10)	물건사기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종한 국어1	2
		물건사기2	사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세종한 국어1	
6	7/21 (2:40~4:10)	어제 일과	보다, 읽다, 듣다, 먹다, 마시다, 만나다	세종한 국어1	2
		어제 일과	극장, 도서관, 백화점, 커피숍	세종한 국어1	

7	8/25 (2:40~4:10)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종한 국어1	2
		날씨	비가 오다, 날씨가 좋다, 날씨가 춥다, 시원하다	세종한 국어1	
8	9/1 (2:40~4:10)	시간	1월, 2월, 1일, 2일, 월요일, 화요일	세종한 국어1	2
		시간	내일, 오전, 오후, 아침, 점심, 저녁	세종한 국어1	
9	9/8 (2:40~4:10)	약속	약속하기	세종한 국어1	2
		약속	약속의 내용	세종한 국어1	
10	9/15 (2:40~4:10)	주말 활동	여행을 하다, 구경을 하다, 축구를 하다	세종한 국어1	2
		주말 활동	사진을 찍다, 집에서 쉬다, 낮잠을 자다	세종한 국어1	
11	9/22 (2:40~4:10)	안부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세종한 국어2	2
		안부	근황(힘들다, 피곤하다, 정신이 없다, 그저 그렇다)	세종한 국어2	
12	9/29 (2:40~4:10)	취미 활동	배드민턴을 치다./ 자전거를 타다./ 등산을 하다	세종한 국어2	2
		취미 활동	빈도(언제나 / 항상 / 가끔 / 전혀)	세종한 국어2	
13	10/13 (2:40~4:10)	음식	불고기, 비빔밥, 설렁탕, 삼계탕	세종한 국어2	2
		음식	맛있다, 맛없다, 맵다, 짜다, 싱겁다	세종한 국어2	
14	10/20 (2:40~4:10)	교통	버스, 택시, 자전거, 기차, 비행기, 지하철	세종한 국어2	2
		교통	타다, 내리다, 갈아타다, 가다, 오다	세종한 국어2	

15	10/27 (2:40~4:10)	길찾기	오른쪽, 왼쪽, 똑바로, 이쪽, 저쪽,	세종한 국어2	2
		길찾기	올라가다, 내려오다, 건너다, 지나다	세종한 국어2	
16	11/3 (2:40~4:10)	전화	전화를 하다, 전화를 받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세종한 국어2	2
		전화	통화표현(잠깐만 기다리세요, 잘못 걸었습니다, 안계신데요)	세종한 국어2	
17	11/10 (2:40~4:10)	외모	예쁘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마르다	세종한 국어2	2
		외모	옷차림(청바지, 양복, 검은색, 노란색, 흰색)	세종한 국어2	
18	11/17 (2:40~4:10)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	세종한 국어2	2
		가족	계시다, 드시다, 주무시다, 건강하시다, 편찮으시다	세종한 국어2	
19	11/24 (2:40~4:10)	여행	여행지 특징(아름답다, 유명하다, 경치가 좋다, 공기가 맑다)	세종한 국어2	2
		여행	여행지(강, 섬, 호수, 온천, 폭포)	세종한 국어2	
20	12/1 (2:40~4:10)	건강	몸(머리, 얼굴, 눈, 코, 입, 손, 발, 허리, 어깨)	세종한 국어2	2
		건강	몸(건강하다, 아프다, 다치다, 감기에 걸리다, 기침을 하다)	세종한 국어2	
21	12/8 (2:40~4:10)	모임	모임에 필요한 것(선물, 케이크, 꽃, 풍선, 음식)	세종한 국어2	2
		모임	모임준비(모임을 준비하다, 시간을 정하다, 사람들을 초대하다)	세종한 국어2	
22	12/15 (2:40~4:10)	고향	장소묘사(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세종한 국어2	2
		고향	살기 좋다, 분위기 좋다, 높은 건물이 많다, 전통적인 도시다	세종한 국어2	

23	12/22 (2:40~4:10)	기분과 감정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외롭다, 화가나다	세종한 국어2	2
		미래	선생님이 되다, 꿈을 이루다, 돈을 많이 벌다, 성공하다	세종한 국어2	

본 연구는 탈북학생 세 명(남3)을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말 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관찰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주로 수집한 자료는 탈북학생들의 국어 수업 결과물과 국어 교육을 위해 생산한 자료들, 학습지, 보충결과 학습지, 한국어 멘토링 결과물 등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관찰이 가능한 조건을 활용하여 다문화 담당 및 담임교사로서 국어수업과 한국어 멘토링 수업을 통해 개별적, 집단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관찰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학습자의 배경과 진보의 정도, 문화적 이해수준 그리고 교우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들의 적응이 국어(한국어)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의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탈북학생의 경우 대부분 북한어의 강한 억양을 쓰고 있어서, 일반 아동들의 말과 달라 놀림감이 되거나 수업시간에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험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호철이, 동성이, 그리고 동현이의 억양, 어휘, 발음 등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은 또래집단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형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 학생의 생활전반을 위축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호철이와 동성이 두 명의 학생은 2016년도에 연구자의 제자 이었다. 동성이와 동현이는 2017학년도에 연구자의 제자이었다. 동현이는 2017년도에 연구자반으로 전학 온 학생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기본능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초학습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탈북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은 언어적, 문화적, 주변시선으로 인해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학력결손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은 모든 기초기본학문의 핵심인 국어(한국어)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에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평소 일반 아동의 교실 수업에서도 국어수업이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된다고 독서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초등교사로서의 교직경력은 13년째 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회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학습 부진 학생들의 문제가 단지 지식 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환경, 의지, 가정배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근본적으로 학습 부진이 생기는 이유는 학습 문제의 지문을 해독할 수 있는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평소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수업에 있어서도 독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어 수업 시간과 연계하여 자신의 느낌, 사고의 흐름 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을 고안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의 경우도 일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국어교육의 필요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국어가 체화되지 않은 탈북학생의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국어교육을 매개로 활용하여 언어 이외의 문화적, 심리적인 접근의 단초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사회적 언어사용능력의 배양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어찌면 북한과의 이질적인 사회체제 또는 남한의 자본주의에서 더 초라해질 수 밖에 없는 탈북학생들의 처지와 그들에 대한 인식이 국어의 습득을 더 방해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 3. 두 탈북학생의 언어적 특성과 국어수업 참여 양상

호철이와 동성이 그리고 동현이는 세 명 모두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이다. 모두 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 아버지는

중국 한쪽이다. 세 학생 모두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어로 생각하는 것이 더 편했다고 했었다. 한국어에 있어서 문화적·언어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많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조사의 사용이 바르지 않았다. 또한 문장의 앞, 뒤 호응 관계를 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수업태도는 좋았고 가정 학습 과제를 충실하게 해오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업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한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일반학생들과는 또 다른 교육 이력과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세 탈북학생들이 국어 수업과 한국어 멘토링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관찰하였다. 탈북학생들의 국어 수업 참여 양상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수업으로 나누어 관찰하였고 이들이 국어 수업과 한국어 멘토링 수업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듣기·말하기 수업은 화자와 청자의 상황이 통합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따라서 듣기·말하기 수업의 관찰을 통해 두 탈북학생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 실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호철이는 안내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생일잔치나 체험학습 그리고 운동회나 어우러지기의 날과 같은 문화적 행사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였다. 생일잔치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일 초대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주어야 했다. 동현이는 생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설명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고 난 후, 생일초대에 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동성이는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요약하여 간추리는 능력도 많이 부족하였다. 생각은 중국어로 하는 것이 편리했었고 한국어로 듣기와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말하는 속도도 느렸고 들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말로 읊기는 것도 힘들어 하였다. 받침이

있는 단어는 더욱더 어려워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 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문장을 듣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데 있어서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아마도 지금까지 유년기 시절을 중국에서 많이 보낸 것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 같았다. 세 명 모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조사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많았다. 그리고 이어주는 말의 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오류가 많았다. 세 명 모두 학교에서 발행되는 안내장, 그리고 학교 행사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처한 상황에 대한 어휘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정보 처리의 과정이 빨라지면서 다른 장르보다는 안내장과 학교행사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속도도 증가 하였다. 세 명 모두 속담이나 관용적인 표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및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해석을 하였다. 속담의 의미를 활용하여 설득하는 말하기 활동은 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비유적 표현과 반어적 표현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속담이나 관용어 표현과 같이 간접적인 표현에서 그 의미를 찾는 활동들은 풍부하지 않은 경험과 이야기 상황 맥락을 같이 생각해야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있어서 힘들어 했다. 속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유적, 상징적, 반어적 표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설명을 해주어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4. 탈북 학생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 연구

다문화 대상자 분류 기준(최영환, 2009)에 따르면 탈북 학생들은 부모의 국적 변동과 거주 이전에 따라 발생한다. 부모의 국적 변동과 거주 이전은 탈북학생들의 언어적 환경과 교수학습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한국어 학습은 우리 사회로의 적응을 위해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탈북학생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어 학습이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전통, 그리고 관습도 포함한 학습을 말한다. 탈북학생들은 개개인의 환경이나 성장 이력에 따라 그리고 학습능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가 능통한 경우도 있고 한국어로 듣기는 가능하나 말하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호철이와 동성이, 그리고 동현이의 경우는 국어 수업을 위한 언어적 경험과 문화적 경험이 부족했고 교수 학습 방법과 교육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국어 수업 참여가 쉽지만은 않았다.

일반 아동과 탈북 아동은 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언어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탈북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나 태국 등 기타 제3국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한국어 접촉의 기회보다 다른 환경에 많이 노출 되었었다. 결정적 시기에 환경이 언어를 지배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국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 학생들은 한국에 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 언어 습득 장치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어 국어수업이 낯설지가 않다. 또한 저학년 시절 받아쓰기는 언어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언어를 많이 배우게 된다. 하지만 세 명의 탈북 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은 턱 없이 많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일반 아동들은 그림카드와 함께 그림책 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언어적 상황과 맥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 명의 탈북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모르는 어휘가 많아 일반 아동들에 비해 책읽기가 힘들었다. 일반 학급에 입급되기 전 짧은 사전 적응 기간과 그런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은 탈북학생들은 독서 활동을 비롯한 언어적 경험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 학생들은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탈북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어휘이고 자연스럽게 보고 들은 스키마는 부족 할 수 밖에 없었다. 세 명 모두의 경우에는 스키마 및 배경지식의 부족이 독서활동 및 학습

참여 활동에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읽기 능력 부족은 국어 수업 참여를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및 과학 등 기타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여러 과목들의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유발하였다.

효율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학습과 문화적 체험, 그리고 배경지식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어 시간에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접하기도 하고 시를 낭독하면서 그림으로 상황을 묘사해 보는 활동 등은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호철이와 동성이 그리고 동현이의 경우 국어 수업 참여가 곤란한 내적요인을 문화적 경험의 부족과 결정적 시기의 한국어 노출 상황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탈북학생 지도용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표준안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만들어졌고 교육대상은 남한학생이 아니다. 탈북학생 지도용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표준안은 남한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탈북학생의 교육 경로는 <표 3>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입국 초기 교육부터 전환기 교육을 지나 정착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북학생 지도용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표준안은 입국 초기 교육을 거쳐 정착기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다(김혜정 2016).

<표 3 탈북학생 교육경로7>

교육 형태 학교급	입국초기교육	전환기교육	정착기교육
초등학교	삼죽초등학교	→	일반초등학교
중등학교	하나원	한겨레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하나둘학교		

7) 한국교육개발원 이지영(2015)의 발표 자료 ‘탈북학생용 국어 교재 검토를 통한 통일 교과서 방향 모색’ 을 참고하였음.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시기는 인지 발달 측면에서 구체적 조작기(8~13세)로의 이행기에 해당되며,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다(오빛나 2019).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시초단계인 사춘기 입문인 이 시기는 추상적 기호로 언어적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며 언어 기호에 대해서도 의미해석이 가능하며 의미 해석을 확장 시킬 수도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의사소통의 주된 원동력은 기존 문자 언어에 덧붙여 그림이나 영상 등을 문자언어와 함께 조합시키는 능력도 포함된다.

의사소통적 측면에서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극복해 청자에 맞도록 말을 조절하고,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벗어나 사회화된 언어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 토론과 토의과정을 익혀 자신의 의견을 타당하게 주장하거나, 토론이나 토의 주제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읽기 발달 면에서는 주어진 내용을 추론하며 읽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찾아 읽거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읽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쓰기 발달 면에서는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문법적 탐구력이 발달하며, 타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감수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5. 결론 및 제언

많은 탈북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부적응과 학습 부진을 겪고 있다. 교사들 또한 이러한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탈북학생들은 다른 다문화 학생들보다 언어적 어려움은 덜 겪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다.

세 명의 탈북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발견한 국어 및 한국어 멘토링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곤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탈북 학생들은 언어적 상호 활동 경험이 일반아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경험의 부족과 독서 경험의 부족은 교과 수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입말이 가능하다고 해서 국어수업이 쉬울 거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둘째, 남한과 북한은 국어 교육의 목적이 다르고 수업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의 국어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학습 용어의 차이 역시 탈북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의 교과수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셋째,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부재이다. 탈북 학생들을 위한 제반적 여건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탈북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이 올라보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대학교 학부에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없다. 부산교육대학교를 살펴보면 윤리교육과에 북한과 통일론이라는 과목만 있을 뿐이다.

언어적 의사 소통능력은 국어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일반 과목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학습 부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탈북학생의 국어 수업 참여 곤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학생들을 위한 언어적 진단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언어적 진단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해야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둘째,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도입이다. 현재 탈북학생들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업무 안에 탈북 학생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

만 다문화 업무는 승진과는 별개로 어려운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경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2급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그 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특수한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그 학교에서 근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와 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육성 및 도입과 직무연수의 확대,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메뉴얼의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탈북 전담교사의 도입을 제안한다. 영어회화 강사나 스포츠 강사처럼 탈북 전담교사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한민족학교에서 탈북 학생들의 초기 적응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민족학교는 학습과 숙식을 같이 하는 기숙사학교로서 전일제 대안학교이다. 이 학교는 탈북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학교로는 삼흥학교<sup>8)</sup>와 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방과 후 교육과 숙식을 맡고 있는 교육시설이 있다. 이 학교의 교장 역시 탈북교사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언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어 습득과 함께 문화적 경험의 기회도 필요하고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적 작용도 중요하다. 김중섭(2009)도 한국어 교육은 문화 교육을 포함한다고 했다. 일상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경험의 부족 그리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직접적, 간접적 경험의 부족은 국어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탈북 학생들을 위해서 탈북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반

---

8) 삼흥학교는 우리말이 서툴거나 부모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탈북학생들이 제도권 교육에 원만하게 진입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기술학교 형태로 설립되어 2010년 11월부터 시범 운영되어 오다가 2011년 2월 25일 정식 개교했다. 삼흥학교 학생들은 오전에는 근처의 신구로 초등학교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삼흥학교로 돌아와 보충학습과 컴퓨터, 태권도, 음악, 영어 등의 방과후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운영과 맞춤형 교재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삼죽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특별반이 일반 학교에서도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죽 초등학교를 거치지 않고 입급하는 탈북학생들의 일반학교 초기 적응을 위해서 일정수준, 일정기간을 특별반에서 학습을 위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수 학급 학생을 지도하는 것처럼 원반에 적을 두고 수준에 맞는 국어와 수학 및 문화적 경험을 익힐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은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초기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지금까지 탈북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학습 부진 없이 효과적으로 일반 수업을 해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이러한 교육적 방안도 더욱 더 효과를 나타 낼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탈북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더 많은 후속연구가 뒷받침 될 때 탈북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등사회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중섭(2004).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 문화사.  
 김지영(2004). 남북한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석사논문.  
 김영란(2013). 탈북 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도 분석- 2011년 초6, 중3, 고2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박영민(2009). 다문화 학습자와 중등학교 교육. 국어 교육학연구

#### 34. 국어교육학회.

- 박영민·최숙기(2006). 다문화 시대의 국어 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학회.
- 배재훈(2012), “북한이탈학생의 국어 사용능력 신장에 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심명선·권순희(2011),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한국어언어문화학 제8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심옥례(2012), “탈북학생의 국어 수업 참여 양상과 국어 수업 곤란 요인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진숙(2008). 다문화 세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32. 국어교육학회.
- 이향규(2007), “새터민 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가톨릭 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전수태(2009). 남북 통일 시대의 국어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31. 한국어 교육학회.
- 전은주(2009).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에 관한 비교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34. 국어교육학회.
- 최숙기(2007). 국어 교과서 다문화 체재 선정에 관한 연구-민족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 최영환(2009).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 국어교육학 연구 34. 국어교육학회.
- 김남미, “제외국민반의 대학 국어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사학과 언어학』 제16호, 사학과언어학회, 2009.
- 김남미, “새터민을 위한 교양국어 수업의 원칙과 방향”, 『교양교육연구』 Vol.5 No.1, 한국교양교육학회, 2011.
- 윤희원, “북한 지역 국어교육 현황”, 『선청어문』 Vol.27 No.1, 서

- 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9.
- 이인제 · 민병곤 · 이재기, “북한의 읽기 교육 현황 분석 -교수 요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Vol.7 No.-, 한국독서학회, 2002.
- 도설희,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남북한 국어 교과서의 비교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 문성수, “남·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은영,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상교육 내용의 변화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필자 소개

성 명 : 정남훈  
 소 속 : 경주유립초등학교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로104번길 43-4 [우편번호]38081  
 전화번호 : 010-4857-0445  
 전자우편 : arnold730528@hanmail.net

투고일: 2020. 1. 6 / 심사일: 2020. 2. 3 / 심사완료일: 2020. 2. 10